

사무엘상 17:10에 대한 번역 제안

김구원*

『개역개정』

(삼상 17: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구절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말을 포함한다. 직접 화법 부분만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 가운데 필자가 수정을 제안하는 부분은 전반절이다:

אני חרַפְתִּי אֶת־מַעְרְכֹת יִשְׂרָאֵל הַיּוֹם הַזֶּ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동사 ‘헤라프티(חרַפְתִּי)’가 완료형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과거로 번역한다. 하지만 그 동사를 포함한 문장과 문맥 전체를 보면 그 동사가 화행(speech act)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행문의 개념은 언어 철학자 오스틴(J. L. Austin)이 처음 밝힌 것으로 특정 발화(utterance)가 기존 상태를 묘사하거나 보고하는 대신 새로운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주례자가 결혼식장에서 “A와 B는 이제 부부입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발화는 기존의 혼인 상태를 보고하는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단국대학교 사학과 강사.
koowonkim@yahoo.com.

것이 아니라, 남남이었던 남녀를 가족으로 만드는 효과를 낸다. 이때 주례자가 선포한 발화는 화행적 의미를 가진다. 화행 이론가들은 이런 화행적 의미를 언표 내적 의미(illocutionary act)와 언향적 의미(perlocutionary act)로 나누는데, 전자는 발화자의 의도와 관계하며 후자는 발화의 효과와 관계한다.

화행 이론을 히브리어 성경에 적용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히브리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화행(speech act)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해석학적 연구는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내에 사용된 동사들에서 화행적 용법을 밝히는 언어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 다행히 지난 십여 년 간 일부 학자들이 화행 이론을 히브리어 문장 단위에 적용하여 화행적 의미가 발생하는 조건들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축성(祝聖, consecration)에 관한 화행 문장들을 연구한 아르카디(J. M. Arcadi)는 화행 문장의 성립을 위한 다음의 문맥적 요건(일반 조건)들을 제안한다: 발화자는 기대 효과를 일으킬 권위를 가진 자여야 한다(언표 내적 의미의 조건). 그리고 그 권위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건에서 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언향적 의미의 조건).¹⁾ 예를 들어 “이 배의 이름은 엘리자베스다”라는 문장이 화행적 의미를 가지려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배를 발주한 선주여야 하고, 또한 그 말을 한 시점이 배의 진수식이어야 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진수식이 아닌, 다른 환경 조건에서 발화되었다면 그 말은 화행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진수식이 끝난 후 벌어진 파티에서 선주가 지인과 나누는 대화를 상상해 보자.

선주 지인: 이 배의 이름이 무엇이야?

선주: 이 배 이름은 엘리자베스야.

여기서 선주의 말은 진수식에 그가 했던 말과 동일하지만 더 이상 화행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확정된 상황을 보고하는 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서 히브리어 문장에서 화행적 용법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아르카디가 제안한 화행 어법에 관한 문맥적 조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서 히브리어 문장에 적용되는 언어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샌더스(S. L. Sanders)는 우가릿어와 히브리어에서 화행 어법이 형성되는 몇몇 특수 조건들을 제안하였다.²⁾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표 내적 의미를 담은 화행 동사가 1인칭 ‘완료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1) J. M. Arcadi, “A Theory of Consecration: A Philosophical Exposition of A Biblical Phenomenon”, *The Heythrop Journal* 54 (2013), 913-925.

2) S. L. Sanders, “Performative Utterances and Divine Language in Ugaritic”,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63 (2004), 161-181.

현대 유럽어에서 화행 동사가 대부분 1인칭 ‘현재형’이라는 사실과 대조된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1인칭 완료형 동사가 화행적 의미로 사용된 예를 살펴보자.

ראה נתתי אתך על כל־ארץ מצרים

사역

(창 41:41) 보라, 내가 너를 모든 이집트 땅 위에 세우노라

『개역개정』

(창 41:41)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형식적이지만) 그의 고관들(38절)과 요셉(39-40절)의 동의를 구한 후 요셉을 총리로 선언한다(41절). 위에 인용된 파라오의 말은 요셉을 ‘실제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는’ 화행적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럴 권한이 있었던 파라오였고, 또한 그 발화가 이루어진 곳도 왕과 요셉, 그리고 고관들의 모임이었다. 요셉을 총리로 선언한 직후 파라오가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운 후 대중에게 공개한 사실은 41절의 말이 요셉의 총리 취임식에서 발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위에 인용된 히브리어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를 보라. 그것은 복서 셈어에서 화행 동사가 취하는 전형적 형태인 1인칭 완료형(נתתי)이다. 이것은 40절에 사용된 비슷한 의미의 문장과 절묘하게 대조된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총리직에 대해 설명하는 문맥에서는 미완료 동사(שק ... תהיה)가 사용된다:

אתה תהיה על־ביתי ועל־פיך שק כל־עמי

“너는 내 집 위에 있을 것이며 모든 백성이 너의 말에 따라 입맞출 것이다”(사역) 이 미완료 문장들은 요셉을 실제로 총리로 만드는 선언이 아니다. 요셉을 실제로 총리로 만드는 것은 1인칭 완료형이 사용된 41절의 화행 문장이다. 『개역개정』도 41절의 1인칭 완료형을 현재형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그 문장이 화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히브리어와 같은 복서 셈어에 속하는 우가릿어에서도 화행 문장은 1인칭 완료형 동사로 표시된다.

KTU 1.100:75

ytt nhšm mhrk

나는 네 신부값으로 뱀들을 주노라

인용된 우가릿 문장은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주문(spell)의 일부이다. 이 주문을 담은 우가릿 문서(KTU 1.100)는 대부분 신화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즉 암말이 뱀에 물린 망아지의 치유를 여러 신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런 신화적 내용의 마지막에 뱀의 독을 치유하는 실용적 주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 주문은 ‘주문의 집’(bhtm mnt, 호론의 궁전) 안에 있는 암말이 호론 신과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다. 호론 신이 문 밖에서 “문을 열 어라. 내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할 때, 암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에게 (독 없는) 뱀을 주어라(m). 나는 너에게 (독 있는) 뱀을 줄 것이다(ytt).” 흥미로운 것은 “A를 주면 B를 줄 것이다”는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주절의 동사가 미완료형이 아닌 1인칭 완료형(ytt)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문장이 언표 내적 의미를 가진 화행 문장임을 보여준다. 즉 그 문장은 호론 신과 암말의 대화의 일부로 제시되지만, 저자는 주절의 동사를 미완료가 아닌 완료로 처리함으로써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실제 주문으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사무엘상 17:10에 기록된 골리앗의 말은 지금까지 논의한 화행 문장의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모든 고대 장수들이 즐겨 했던 일을 한다. 즉 적군을 모욕한다(קָרַח).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말에 마술적 힘이 있다고 믿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골리앗의 모욕은 곧 저주의 효과를 가진다. 그 모욕이 전쟁터에서 적장에 의해 발화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골리앗의 말에서 화용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일반 조건을 충족시킨다. 다시 말해, 아르카디가 제안한 화행 어법이 발생할 수 있는 권위 조건과 상황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또한 골리앗의 말이 1인칭 완료형 동사(קָרַחְתִּי)를 가진다는 사실도 그것이 화용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렇다면 그 완료형 동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그 문장에 사용된 부사 ‘하욘 하제(הַיּוֹם הַזֶּה)’는 화행 문장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의환기용 부사 (“hereby,” “now”)를 연상시킨다. 이 부사는 장소나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행문의 현장/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창세기 41:41에서 ‘르에(לְרֵעִי)’ 즉 “보라”가 파라오 선언의 현장성을 강조한다면, 골리앗의 저주 속 ‘하욘 하제’는 “오늘”이라는 특정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저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부사로 이해할 수 있다.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유죄로 선포하는 때처럼, 사실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말을 듣는 상대를 실제 그 상태로 만드는 의도나 효과를 가진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런 화용적 용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화용적 의미를 가진 1인칭 완료형 동사 ‘헤라프티(הִרְפִּיתִי)’를 과거문으로 직역한 결과이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이런 번역은 문맥적으로도 어색하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앞서 이스라엘을 모욕한 적이 없다. 골리앗은 바로 직전(삼상 17:8-9)에 일대일 대표전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에 응하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골리앗은 그 모욕을 통해 이스라엘이 대표를 내보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문맥상 골리앗의 말은 단순히 이전 모욕을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일 수 없다. 골리앗은 말을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ESV의 번역은 참고가 된다:

“I defy the ranks of Israel this day.”

ESV는 완료 동사 ‘헤라프티’를 현재형 동사(I defy)로 번역하여 그것의 화행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사 ‘하욘 하제(הַיּוֹם הַזֶּה)’를 “today”가 아니라 “this day”로 번역함으로써 그 문장이 근접 과거(“오늘”)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현재적 모욕(“이제”)에 대한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해당 구절은 “내가 이제/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노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자기와 싸울 전사가 나오도록 그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 성경 저자는 모욕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골리앗은 지금 발람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다.

(투고 일자: 2022년 5월 11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3일)